

# “열악한 시설 개선 예산 적극 지원”

### 서거석 교육감, 정읍시의회 의원들과 교육정책 간담회… 학교 체육시설 개방·윤리교육 강화 등 논의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해 관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교사·학생 간 윤리교육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먼저, 서형경 의원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교육기관에서 학생 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사와 학생을 위한 윤리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석환 의원은 “정읍학생수련원을 학부모 등 정읍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이 외에도 정읍학생복지회관의 교육문화화관 승격, 학교 노후 시설물 개선, 통학로 정비, 학생 예절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9일 정읍시의회를 방문한 서거석 교육감이 관내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맞춤형 인성교육, 학급 단위 민주시민교육, 따뜻한 학급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승격을 위해 현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승격(안)이 최종 확정되면 재원 확보 등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가 핵심 연구소들과 ‘맞손’

### 전북대, KIST·식품연구원 등과 협약 잇따라… 산학연 교류 강화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IST·원장 윤석진),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등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전북대에서 양오봉 총장 등 전북대 주요 보직자들과 KIST 등 연구기관 등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KIST와는 학·연 협력사업에 기반을 둔 학연교수 공동 활용뿐 아니라 장비의 공동사용 및 성과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간 R&D 공동 신청 및 활성화 추진과 함께 교육, 연구, 기술 등 정보 교류 및 협약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한국식품연구원과도 학·연 협력사업 추진과 기술 컨설팅을 활성화 하고 보유한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한편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 등을 폭넓게 교류하기로 했다

특히 상호 간 R&D 사업 발굴을 위해 양 기관의 연구진들이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키로 해 해 식품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와 앞서 전북대는 지난 4일 전주 혁신 중재의료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고창 상하농원, 전주시 노인회 등과 뜻을 같이 한 바 있다

양오봉 총장은 “국내 최대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공동 추진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미래 아젠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이들 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



전북대학교는 지난 8일 한국과학기술원과 협약을 체결했다.

리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진 KIST 원장은 “전북대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R&D 생태계 조성 및 지역과 국가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새로운 학·연 융합 모델과 공공 R&D 성과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대학 중심의 R&D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북대와의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형희 원장은 “새로운 학·연 협력사업 추진과 공공 R&D 성과를 위해 식품 분야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갖춘 전북대와 손을 맞잡고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북 로컬푸드 활용…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 전주대, 레시피 공모 기획… 29일까지 네이버 폼 통해 신청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전라북도 로컬푸드를 활용한 MZ 대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이란 주제로 레시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전주대에 따르면 2학기 천원의 아침밥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우리 쌀과 전북 로컬푸드 등을 활용해

MZ 대학생 맞춤형으로 차별화 된 천원의 아침밥 제공을 위한 메뉴 개발의 일환으로 공모전을 기획했다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F9pm4Lly)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상금 50만 원과 총장상장이 주어진다. 또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홍성덕 대외부총장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MZ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천원의 아침밥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수상된 작품은 2학기에 전주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메뉴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마음 치유, 봄처럼’… 전주대 심리치료연구소,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 선정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 부설 심리치료연구소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마음 치유, 봄처럼’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음 치유, 봄처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대상 특화 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미·재활단계의 대상에게 특화된 상담·심리적 활동 기반 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주대학교 심리치료연구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교 부적응 학생, 전라북도에는 3개 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들에게 통합예술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민 소장은 “이번 문화예술치유 지원사업은 전주대학교 예술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예술치료 전문가들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다양한 내담자들과 함께 예술을 매개체로 정서적 위안, 돌봄 그리고 희망을 경험하고 이야기하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5학교 Wee 클래스의 학

과 부적응 학생, 전라북도에는 3개 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상담 수요자들에게 통합예술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 품은 인재육성사업 ‘호응’

### 전주대, 대학·중고교 연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가 지역 품은 대학·중고교 연계 인재육성사업의 선도적 운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 자원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고교의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지역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전주대는 도내 대학 중 1위로 평가받아 총 사업비 20억 원 중 약 5억 원을 확보했다

주정아 입학처장은 “이번 사업에서 전주대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중·고교들은 그동안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 한편, 전주대는 이 사업 외에도 대교협에서 진행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사업’을 통해 정보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고교 박람회 운영’, ‘입시 상담실 운영’ 등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진학지도 전문가 양성 적극 나서

### 도교육청, 내달까지 수도권 주요 대학 연계 교사 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진학 전문가 양성에 적극 나섰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진학지도 실현을 위해 도내 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고교 진학지도 컨설팅이 오는 11~12일 도교육청 청주나래(별관) 회의실에서 운영된다. 도내 18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고교별로 서울대 입학사정관과의 만남을 통해 서울대 전형 평가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고교진로와 연계한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어 6월에도 수도권 주요 대학 입

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연수가 이어진다. 6월 3일 고려대·연세대 교사를 시작으로 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인하대 등의 입학사정관이 참여하는 연수가 마련됐다

6월 10일은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총출동하는 ‘내입전형 전문가 집중 연수’로, 고교당 한 명씩의 진학 전문 교사를 추천받아 토론형 진학 연수도 준비했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시 확대와 고등학생들의 대학 지원 성향을 고려해 도내 교사들과 수도권 주요 대학의 만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진학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세대 맞춤형 노무관리 연수

### 지방공무원 400여명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10일 이틀간 지방공무원 노무관리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연수는 노무관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관련 법령과 사례 중심으로 마련됐다

특히 담당 업무에 맞춰 2080세대는 교육공무원직인 임금을 4060세대는 교육공무원직인 복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북교육 10대 핵심 과제 △교육공무원직인 임금·복무 △갑질판단기준 및 유형별 사례 공유 △

공감력을 통한 조직 소통 등이다

이번 강사로 초빙된 최선영 노무사가 교육공무원직인 임금·복무 관련 사례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교육공무원 노무관리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김춘에 대표(한국사시교육연구원)가 소통을 통한 공직사회 이해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 참여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이해하기 힘든 교육공무원직인 임금, 복무 등 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높이고 현장 지원을 위한 연수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2023 제1회

###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초 75 · 중 160 · 고졸 510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9일 홈페이지(www.je.go.kr)에 2023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 총 1,071명이 응시해 초졸 75명·중졸 160명·고졸 510명 등 총 745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0.80%로 2022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률보다 1.37% 감소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79세·중졸 75세·고졸 76세로 나타났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중졸 12세·고졸 13세로 집계됐다

합격증서는 우편 수령 신청자는 2~3일 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방문 신청자는 오는 23일까지 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1층 고객지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성적조회는 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소식·성적확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 26일까지 화재 예방 시설 안전점검

### 도교육청, 드라이버트 공법 마감 학교 대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드라이버트 공법으로 마감된 학교 11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국가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재난 예방 활동이다

점검 대상학교로는 전주대정초, 전주초, 전주동북초, 전주효문중, 전주한일초, 이리서초, 이리동중, 괴곡초, 부남초, 백화여고, 고창북고 등 11곳이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기술직공무원 및 분야별 소방, 전기, 승강기 등 전문가 4인 이상으로 한 팀을 구성해 민·관 합동점검단 활동을 벌인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부 마감재 균열

등 파손, 탈락과 건물 주변 인화성 물질 보관 여부, 소방시설 작동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시정조치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시설 관리주체가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 재난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의 상세 점검 또는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주 시설과장은 “점검의 신뢰성 확보 및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면서 “철저한 안전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